

제 1 교시

박시현 국어 분석서

성명

수험 번호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의 본계약 성립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가 가지는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 수 있다. 법

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에 대해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3.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ㄴ
본계약상 급부	ㄷ	식사 제공

- | ㄱ | ㄴ | ㄷ |
|------------|-------------|----------|
| ①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④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4. 뒷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② ㉡ : 올해 생일에는 고향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 ③ ㉢ : 기차역 주변에 새로 생긴 상가에 가 보았다.
- ④ ㉣ : 나는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방법을 물어 보았다.
- ⑤ ㉤ : 바닷가의 찬바람을 쐬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01	02	03	04	05
⑤	③	①	④	②

채권은 어떤 사람(갑)이 다른 사람(을)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첫 문단에서는 용어들의 정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법 지문인 만큼 용어의 정리, 사례, 원칙과 예외 부분(특히 예외 부분)을 볼 때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채무라고 하네요. 당연하게도 채무자(을)가 급부(특정 행위)를 이행하면 채무(의무)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원칙과 예외는 아니지만 급부가 재화나 서비스인 경우(원칙1)일 수도, 그 외의 내용(예외1)일 수도 있다는 것만 가볍게 체크 해놓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윗부분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권리는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예외2) 하거나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원칙2) 한다 정도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편의상 원칙과 예외로 나눈 것이고 정확히는 조건1, 조건2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용어의 정의는 앞에 말했듯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약이 성립한다면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네요. 이 말인즉슨 계약이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예약의 등장 배경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예약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니 법적인 관점에서 예약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예약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직관과는 다른 의미의 예약이 나온다는 것이겠지요? 예전 사단법인 지문의 '대표는 기관이다.'에서 봤듯이 익숙한 용어가 다른 의미로 나왔을 때, 잘못된 직관이 개입해 틀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뒤에 나오는 예약들의 의미 파악에 힘을 주고 독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예약은 법적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법적 예약이라 함은 급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본계약)이 아닌 급부가 본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본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하는 것이 법적 예약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만약 완벽한 독해를 한 사람이라면 첫 부분에 나온 용어들의 정의와 이 부분들의 내용들이 연결이 됐을 겁니다. 연결이 됐다면 이 내용을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고요. 지문을 토대로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기차를 탑승시켜 주는 것(서비스)=급부
 기차 탑승시켜 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
 기차 탑승을 시켜줘야 할 의무=채무

이를 보면 사례의 내용이 급부가 서비스 제공(원칙1)인 계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급부가 서비스나 재화인 계약(원칙1)이 본계약임도 파악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독해가 됐다면 법적 예약은 급부가 서비스나 재화가 아닌 그 외의 내용으로 하는 계약(예외1)이고, 법적 예약을 하면 본계약과 본계약을 성립시킬 권리를 계약하므로 최소 두 개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 독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적 예약이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이라는 점에서 계약이 최소 두 번 이상 일어난다는 점과 법적 예약과 일상적 의미의 예약 모두 '계약'이라는 점은 꼭 파악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가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법적 예약이 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네요. 당연히게도 뒤의 내용을 공통점과 차이점 위주로 독해하면 되겠죠?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회사의 급식 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이 경우 예약상 권리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일단 당연히게도 둘 다 법적 예약입니다. 당연한 공통점이겠지만 이렇게 한 갈래에서 뺀어 나가는 형식이 보이면 공통점을 끌고 내려가면서 독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잡고 내려간다면 뒤의 두 가지 형식의 예약들이 모두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이 목적이라는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잡고 그에 맞춰서 독해한다면 둘의 차이점이 더 명확하게 독해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적 예약이라고 하네요. 간단하게 내용을 사례에 적용시켜 독해하면 예약상 권리자(=선정된 급식 업체=채권자)는 본계약(=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의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회사=채무자)이 승낙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법적 예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내용을 사례에 적용시키면 예약상 권리자(=예약한 사람=채권자)가 본계약(=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본계약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예약 완결권은 행사하는 즉시 본계약까지 체결되는 권리 정도로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결국 이 둘의 차이점은 채무자의 의사 표현 여부겠네요. 첫째는 채무자의 의사 결정에 따라 본계약의 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지만 둘째 사례의 경우는 채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예약만으로 본계약까지 타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Q1. 첫 번째 사례도 채무자가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예약도 채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본계약이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A1. 먼저 본계약의 성립 요구라는 것이 중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의적 의미의 여부와 관계없이 '승낙'이라는 표현은 '응하다'의 의미입니다. 이는 그다음 '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라는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어에서 직관은 독이 될 때도 있으므로 같은 의미들의 다른 단어들(들)을 묶는 것 즉, 청킹(Chunking)으로 의미 파악을 하고, 만약 청킹이 안됐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직관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2. 기차 사례하고 식당 사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전자는 법적 예약이 아니고, 후자는 법적 예약인가요?

A2. 기차 사례에서는 미리 돈을 지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정해진 시점에 기차를 타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획득한 것이죠. 따라서 본계약 하나의 계약만을 맺기 때문에 법적 예약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사례에서는 미리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식당한테는 없고, 그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을 권리도 채권자인 예약자에게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계약인 '돈을 지불하고 식사를 제공받는다'라는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본계약을 맺을 권리를 계약하는 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이라면 계약의 급부가 서비스인지 아닌지로 판단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참고) 기차 사례가 법적 예약이 되려면 기차표를 예약하는 것이 아닌 기차표를 예약할 권리를 계약하는 것이 법적 예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 배상 채무로 바뀐다.

법적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양상에 대해 언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채권자에게 급부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단, 주의할 점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급부의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채무는 원래의 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에서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의무로 바뀐다고 하네요.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 배상을 하면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위 지문의 앞부분과 다르게 채무자나 예약상 권리자(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고의나 과실로 채권자(예약상 권리자)의 권리 실현이 방해됐을 때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면 가해자(제3자)는 피해자(채권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하는 채무를 집니다.

단, 예약상 권리자(채권자)는 가해자나 채무자 중 아무에게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이 손해 배상을 한다면 나머지 한 사람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두 문단에서 주의할 점은 우리의 직관과 지문의 내용이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타인의 고의로 권리 실현이 방해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둘 중 임의의 한 명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법 지문에서의 직관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보이는데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선의취득 등이 있겠죠.) 실제 법은 추가 조항에서의 보완이 있겠지만 우린 그 부분을 모르니 직관에 어긋나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직관에 어긋나더라도 직관이 아닌 지문 내용에 맞게 독해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약상의 채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추가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 외에 다른 형태의 권리도 존재한다.
- ③ 예약상 권리자는 본계약상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급부가 이행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된다.
- ⑤ 불법행위 책임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국한된다.

정답:⑤

마지막 문단에서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방해했다면,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설:

- ① 지문 해설 중 원칙2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② 지문 해설 중 예외1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 ③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본계약을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가 아닌 권리이기 때문에 예약상의 권리자는 권리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지문의 첫 문단에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라고 지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인 급부에 해당한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 ③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로 정해 두는 것이다.
- ④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⑤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정답:③

㉠에서는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함으로써 기차 탑승을 요구할 권리인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래의 내가 예약한 시간으로 두었습니다.

해설:

- ① ㉠에서의 채권은 기차 탑승을 요구할 권리이고, 이 채권에 대한 급부는 기차 탑승입니다.
- ②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시간이 없다면 의무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듯 싶습니다.
- ④ 지문에 ㉠의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 ⑤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법적 예약인데 ㉠의 사례는 법적 예약이 아니라고 지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ㄱ~ㄴ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구분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
예약상 급부	ㄱ	ㄴ
본계약상 급부	ㄷ	식사 제공

- | ㄱ | ㄴ | ㄷ |
|------------|-------------|----------|
| ①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대금 지급 |
| ② 급식 계약 승낙 | 없음 | 급식 제공 |
| ③ 급식 계약 승낙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④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제공 |
| ⑤ 없음 | 식사 제공 계약 체결 | 급식 대금 지급 |

정답:①

해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첫 번째 사례이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본계약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계약상의 급부는 예약상 권리자(급식 업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급식 대금 지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약상 급부 또한 본계약인 급식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급식 계약 승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즉시 본계약이 성립하므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예약상 급부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풀이:

만약 이러한 구조를 잡지 못하였다면 최소한 계약의 주체 정도만 잡아줘도 충분했을 듯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풀었고요. 현장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급부라고 발문에 나와 있으므로 ㄱ과 ㄴ은 급식 업체가 요구할 만한 급부 내용에 알맞은 것이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ㄷ에는 당연히 급식 대금 지급이 와야 합니다. 급식 업체가 급식 제공을 요구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풀었다면 1번 선지와 5번 선지가 경합합니다. 여기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보다 한 단계가 더 많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됐을 것 같습니다. 전자의 예약에서는 없고, 후자의 예약에서는 있는 단계는 없으니까 당연히 없음이 오려면 ㄴ에 와야겠죠.

솔직하게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현장에 맞는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 시에 정확한 풀이와 현장에서 빠르고 정답만을 맞출 수 있는 풀이 모두를 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 당일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 둔 시간에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 ①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 배상 채무가 있다.
- ②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 ③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 ④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를 진다.
- ⑤ ㉠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된 경우, 을과 달리 병에게는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보기 해석:

갑과 을이 맺은 계약은 법적 예약이고, 그중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10시에 갑은 머리 손질을 받아야 하지만 병의 고의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병의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봤을 때,

1. 보기의 갑과 을의 계약은 예약 완결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2. 배상은 무조건 금전적인 배상이다.
 3. 병은 갑에게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할 채무를 지닌다.
 4. 을은 고의성이나 과실 입증 여부에 따라 배상의 채무를 지닐 수도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
- 정도는 생각하고, 선지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답:④

병은 위법행위 이전에는 갑에게 채무가 없었으므로 병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위법 행위에 대한 배상의 채무만을 지닙니다.

해설:

- ①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을은 10시에 머리 손질을 해야 하는 채무에 대한 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위법행위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 ② 지문 마지막 문단을 보면 양쪽 모두에게 손해 배상 채무가 있는

경우, 급부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둘 중 한 명만 배상을 한다면 나머지 한 명의 채무도 사라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과실이나 고의의 여부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도 갑에게 손해 배상 채무가 생김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도 갑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생기고 병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갑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동일한 내용을 가진 급부의 채무를 가집니다.

- ⑤ 지문에 있는 결백함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이라는 문장을 볼 때, 결백함을 증명한다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됐다면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병만이 위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